「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자료집

2026. 11. 6.(금) 14:00~16:00
레이어스튜디오11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자료집

2026. 11. 6.(금) 14:00~16:00
레이어스튜디오11

목차

행사 안내 및 프로그램			03
01	발제	정보람 **인간다움 회복과 발견, 인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우리** AI 시대와 삶의 위기에 대응하는 인문적 사유	04
02	토론 1	김희삼 **AI 시대 인문의 의미와 정책 방향**	22
03	토론 2	정종은 **인간다움의 회복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새로운 지향**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정체성과 실천 방향에 관한 제언	28
04	토론 3	강현조 **생활권에서 이어지는 인문: 엮고, 붙들고, 남기기**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7~2031)의 '인문의 지역 확산(생활권 내)' 전략에 대한 제언	36
05	마무리		54

행사 안내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일시 2026. 11. 6.(금) 14:00~16:00

장소 레이어스튜디오11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13:30~14:00	**등록**	참석자 입장 및 착석
14:00~14:10	**인사말**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재원** 국회의원 **김선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위원장
14:10~14:50	**인문대담**	"AI 시대, 다시 묻는 인간다움과 인문문화의 가치" - **이세돌**(전 프로바둑기사), **최성운 PD**(최성운의 사고실험 진행자)
14:50~15:05	**발제**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
15:05~15:45	**토론**	**성해영**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김희삼** 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정종은**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강현조** WOWLAB 이사
15:45~16:00	**마무리**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01 발제

인간다움 회복과 발견, 인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우리

AI 시대와 삶의 위기에 대응하는 인문적 사유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CONTENTS

발표 순서

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

Ⅱ. 환경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Ⅲ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과제(안)

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

2차 기본계획 만료에 따른 3차 기본계획 수립시기 도래

법적 근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02. 03. 제정 / 2016. 08. 04. 시행 (법률 제13940호).

제1차 기본계획
2017 – 2021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2차 기본계획
2022 – 2026
인문으로 '행복한 개인, 품격있는 공동체' 실현

제3차 기본계획
2027 – 2031
NEXT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 행복의 기반으로 인문 강조
- 개인과 공동체 해체 위기
- 인문프로그램 수요 증가

-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심화
- 인구구조 변화, 사회갈등 확대
- 전통문화 활용 한류콘텐츠 인기

- AI 시대, 삶의 방식·태도 급변
- 존재론적 위기와 성찰 수요 증가
- 인간 중심의 아날로그 경쟁력

3/21

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 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 보존
7.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지원· 관리
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지원 현황
3. 법 제13조 각 호의 기관의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4.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5.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구분	인문학 (교육부)	인문정신문화 (문체부)
정의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 · 문학 · 역사학 · 철학 · 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 · 체험 · 표현 · 이해 · 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 · 무형의 문화적 산물**
내용	대학 · 학문 중심	시민의 인문활동 · 공동체 결속 중심
정책 배경	취업 중심 대학 정책 속에서 인문계 학과 축소, 인문학(연구·교육)의 위기	공동체 붕괴 · 물질만능주의 대응, 시민 인문소양과 지역사회 인문공동체 중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 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 · 문학 · 역사학 · 철학 · 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 · 체험 · 표현 · 이해 · 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 · 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Ⅰ.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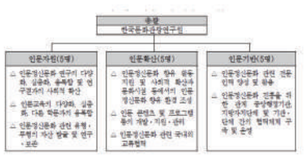
연구기간 : 2026.04.13.~2026.11.20.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분석
제2차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과 핵심사업에 대한 정책 및 성과, 선행연구 및 정책 환경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함

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 현황 및 성과 수준을 진단·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성과분석함

실태조사 — 국민 2,500명, 관계자 500명
07. 03. ~ 07. 22.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추진 위원회 운영
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진단 및 향후방향설정을 위해 연구진,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7개) 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추진위원회)및 운영하며, 간담회를 통해 향후 5년간 문화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인문정신문화진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델파이 조사를 실시,

1차 및 2차 개방형 의견을 범주화하여 3차 중요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함

델파이 조사 — 15명, 3차 진행
1차 06. 29. ~ 07. 08.
2차 07. 13. ~ 07. 26.
3차 08. 05. ~ 08. 13.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자문회의(FGI)
문체부 인문정신문화진흥정책 중장기방향설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FGI를 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인문정책국제동향, 도서·출판·지역등 현장, 타부처 인문정책 연계 등

Ⅱ. 환경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정치적 요인 (Political)

AI 등 기술혁명 속 미래정책 중심축으로 인문 재배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주요국 흐름

미래정책의 중심축으로 인문 재배치

CIPSH – 75TH ANNIVERSARY DECLARATION, 2024
인공지능(AI)이나 기술 혁명이 윤리적·비판적 사고(인문학) 없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



미국 NEH – Humanities Perspectiv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윤리·법·사회적 함의를 인문학 관점에서 연구하는 특별 이니셔티브

국내 정치 기조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 2025.6.)

국정과제 77(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26년 4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 기반정책

경제적 요인 (Economic)

시간빈곤과 인간다운 삶 갈망, 인간 중심의 아날로그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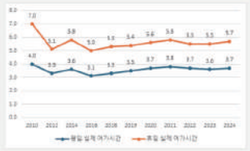
시간빈곤으로 성찰과 관계에 투자할 여지 축소

한국 노동시간 연1,833시간 · OECD 6위

OECD 평균 1,736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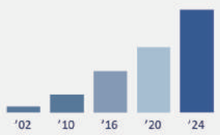
한국 1,833h

평일 및 휴일 실제 여가시간 추이('1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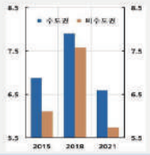


지역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험지역 02년 4개 → 24년 130개



수도권-비수도권 문화서비스 차이(15-21년)



속도와 경쟁, 디지털 피로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웰니스, 아날로그의 부상

책 구매, 손글씨, 마음챙김과 위로 등 인간중심 경험의 경쟁력이 커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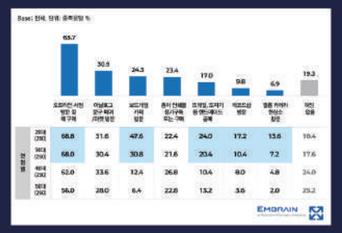
디지털 의존 속 아날로그 필요성

69.9%

AI 시대 아날로그 가치 인식

64.3%

1년이내 경험한 아날로그 활동



글로벌 웰니스 경제 현황 및 전망



지역사회 성장동력으로 인문가치 발견

사회적 요인 (Social)

사회적 충격이 남긴 삶의 상흔, 존재론적 위기와 성찰수요 증가

능력주의, 소비주의, 서열주의로 인한 사회적 불안으로 자살, 우울, 외로움, 중독 위기의 사회

자살, 우울, 불면 등 문제 경험률 관측이래 최고 수준

2024년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9.1명

OECD 평균 10.9명 ('23년)

자살 동기 1위

정신적 문제

35.4%

경제 29.6% / 질병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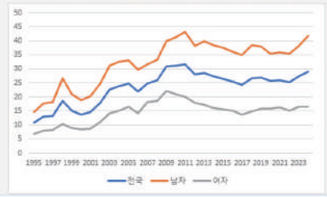
우울,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 (관측 이래 최고)

73.6%

2026.5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방향' 발표

연도별 자살률 추이('95~'24년)

자살률: '95년10.8명→'98년18.6명(IMF)→'03년22.7명
→'09년 31명(스마트폰)→'24년 29.1명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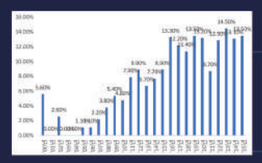
사유와 성찰에 대한 수요 증폭, 교수 및 고경력 전문가 사회배출(퇴직) 본격화

인간과 삶의 의미를 다시 묻고 싶어 하는 욕구

인문 베스트셀러 **13.5%** '00년 5.6% → '16년 13.3% → '25년 13.5%

서울국제도서전 **16만 명** '텍스트힙' 트렌드 확산

인문진흥 조례 **27개** 서울·전남·부산·경기·제주 등





60세 이상 교원 비중 **19.61%** '15년11.9%→'18년16.19%→'25년19.61%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교원		90,215	90,371	90,902	90,288	89,345	89,475	90,464	89,257	88,165	87,318	86,701
60세 이상	계	10,734	11,988	13,518	14,618	15,805	16,607	17,230	17,407	17,295	17,180	17,004
	비중	11.90%	13.26%	14.87%	16.19%	17.69%	18.56%	19.05%	19.50%	19.62%	19.68%	19.61%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2015~2025) 원자료 재구성 및 재집계

사회위기 속 인문 수요 대응, 인간존엄, 정신적 풍요로움 성찰 보장

II. 환경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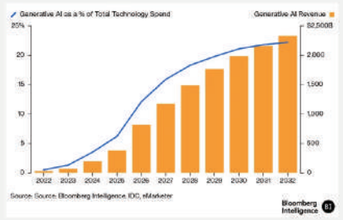
기술적 요인 (Technological)

AI 시대, 기술의 발전 이면에 삶의 방식·태도 변화와 휴머니즘

AI. 디지털 전환 속 문해력·과몰입 문제)

전세계 생성형 AI 시장 연평균 25~35% 성장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매출 전망('22~'32년)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이용 경험률('23~'25년)



인지의 외주 일상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약화

PIAAC 2주기 성인 언어능력 평균 점수

24점 하락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25년)

22.7%

만 3~69세 스마트폰 이용자

AI.디지털 전환 속 인간의 경험과 역할 재구성

AI 시대 시민성, 인간의 주체성,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공감, 책임 있는 시민성 강조

프로그램	핵심 내용	주요 특징
AI Paradigm: Between Personhood and Power	AI를 인격성과 권력의 문제로 다루는 연구·출판 시리즈	AI의 의인화, 인간의 책임, 기술 권력과 민주주의를 철학·예술·사회이론으로 토론
UNESCO 디지털 시민성과 AI 교육 MOOC	알고리즘, 디지털 발자국, 허위정보, AI의 윤리적 사용, 권리 보호, 민주적 참여 교육	라틴아메리카 맥락의 학제 간 접근을 바탕으로, 교원과 교육 관계자가 디지털 환경을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실천적 교육 강좌
UNESCO AI 역량 프레임워크	인간 중심 사고, AI 윤리, AI 기술응용, AI 시스템 설계의 4대 핵심 영역에서 12개 역량 제시	'이해-적용-창조' 단계, AI를 수동적 소비가 아닌 책임 있는 공동창조의 대상으로 접근

Competency aspects	Progression levels		
	Understand	Apply	Create
• Human-centred mindset	• Human agency	• Human accountability	• Citizenship in the era of AI
• Ethics of AI	• Embodied ethics	• Safe and responsible use	• Ethics by design
• AI techniques and applications	• AI foundations	• Application skills	• Creating AI tools
• AI system design	• Problem scoping	• Architecture design	• Iteration and feedback loops

AI 시대 휴머니즘, 인문의 사회적 책무 확대

II. 환경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종합분석

정치

기본사회와 인문가치

AI 시대 삶과 사회 전면 변화 속에서 인문 중심축 재배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 국정기조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 기반정책

경제

시간빈곤과 아날로그 경쟁력

장시간 노동·지역격차 속에서 인간중심 경험의 상품·서비스 경쟁력 확산

⇒ 지역사회 성장동력으로 인문가치 발견

사회

삶의 상흔과 성찰수요

자살·우울·외로움·중독의 사회문제화, 인문 조례 제정과 사유·성찰 수요 확대

⇒ 인간존엄, 정신적 풍요로움 성찰 보장

기술

AI 시대 휴머니즘

인지의 외주와 문해력 약화, AI 시대 시민성·비판적 사고·윤리적 판단 강조

⇒ 인문의 사회적 책무 확대

제3차 계획의 주요 환경변화

AI 시대,
삶의 방식·태도 급변

존재론적 위기와
성찰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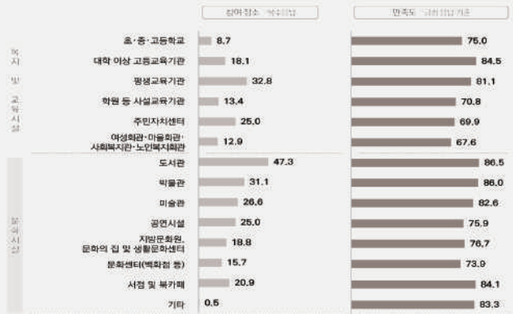
인간 중심의
아날로그 경쟁력

기 추진 정책 진단

성과

사회문제 해결, 치유 등 인문정신문화 정책 외연 확장

- 외로움·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세대갈등을 주요 문제로 설정하고 인문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외연 확장
- 문화 및 복지, 교육시설에서 인문활동을 접촉하고 있으나, 문화시설 공급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



한계

사회이슈 중심 대응, 인문정신문화 정책 정체성 불분명

- 사회이슈·현안(외로움·MZ세대·한류 등) 대응에 치우쳐 인문적 상상력, 성찰, 사유, 비판 기능 미약
- 활용·확산 중심 사업 나열 구조, 인문치유·인문심리상담은 임상심리·정신건강·복지 서비스와 차별성 불명확

2차 계획 기대효과 —시설·참여자 수 중심의 산출지표

500명 인문심리상담사	8,250명 상담	10,500명 인문치유프로그램
300,800명 공동체화합	2,220개소 인문인프라	350개소 세종학당

인문정신문화 진흥이 본래 지향해야하는 비판적·사유적 축 약화, 인간다움 복원 문화정책 모델 고도화 필요

기 추진 정책 진단

성과

시민참여 인문프로그램 양적 확대, 정책기대감 향상

프로그램 수 변화 ('22년 → '26년) *인생나눔교실은 22년 → '25년 멘티기관 수



정신건강·사회적 고립 이슈 대상특화 프로그램

(군대)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교정) 한국형 클레멘트코스

(고립) 청년 인문교실 (과몰입) 디지털 과몰입 인문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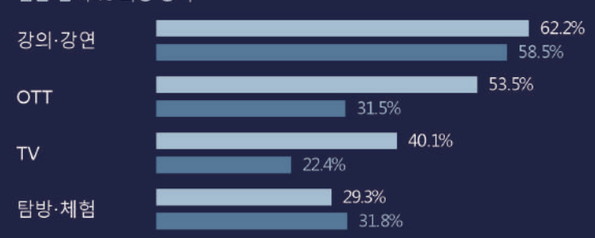
인문정책 인지도	인문정신문화 관심도	인문정신문화 정부노력 인지도
39.6% → 54.2%	27.7% → 52.2%	14.1% → 40.3%
(2021) (2026)	(2018) (2026)	(2021) (2026)

한계

여전히 강좌 중심, 개별사업 공급중심 지원

강의·강연 위주로 운영, 향후 선호는 탐방·체험·커뮤니티 활동으로 이동
관계 회복·자기서사 회복 등 실천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패키지 필요

인문 참여 vs 희망 방식



인문활동 시설·프로그램은 늘었으나 개별사업 공급 중심의 지원, 인문정책 통합설계(정책성과 기반 패키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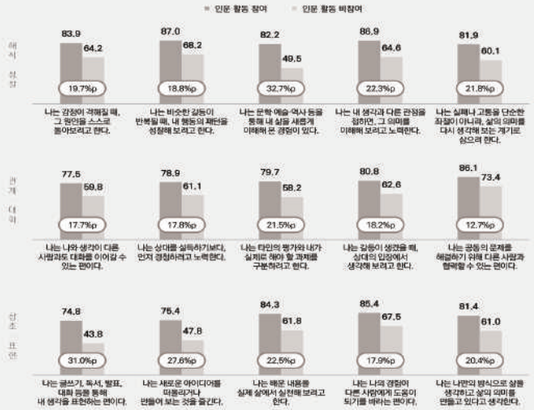
II. 환경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기 추진 정책 진단

성과

도전적 계획과 인문활동 참여자의 인문역량 성취

인문적 가치 지향 및 태도 모든 영역에서 인문 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긍정 응답



한계

정책 실행체계 및 기반 미완성

인문문화진흥원 설립은 무산되었고, 지역 상설거점·전담인력·정책 환류 기능은 논의 단계에 그침

인문사업 전담기관-지역거점-전문인력-성과관리까지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

인문사업 전담기관
▼
지역거점
▼
전문인력
▼
성과관리

정책시스템에 대한 도전적 계획은 미완에 그침, 인문정신문화 정책 성과관리 생태계 혁신 필요

II. 환경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제3차 기본계획 방향 설정

AS IS	TO BE
인문정책 지향점 **정책외연 확장 이면에 인문정책 정체성 불분명** 성과 — 사회문제 해결 등 인문정책 외연 확장 한계 — 사회이슈 대응에 집중, 인문 본연의 비판·사유 기능 미약	인문정책 지향점 **사유·성찰·관계·회복 중심의 정체성** 방향 — 삶의 재발견 경로 중심 미래형 정책 구조화 변화 — 정책 외연 확장 → 삶의 재발견, 정책 정체성 강화
인문정책 확산 **양적 확대, 개별사업 공급중심** 성과 — 사업 수 양적 확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산 한계 — 공모사업 중심의 사업 분산, 강좌·일회성 운영	인문정책 확산 **생활권 거점 · 패키지형 통합설계** 방향 — 삶의 현장에서 성숙한 성장 동력으로서 인문 정책 확산 변화 — 민간·생활권·복지·직장으로 통합, 통합 생태계
인문정책 기반 **도전적 계획, 미완의 실행체계** 성과 — 재정·조직·제도 등 도전적 계획으로 인문역량 및 정책인지도 향상 한계 — 인문문화진흥원 설립 무산, 환류·전담인력 미완성	인문정책 기반 **통합 성과관리 · 플랫폼 고도화** 방향 — 정책체감도 제고 국민중심 정책기반 강화 변화 — 전담기관–지역거점–전문인력–성과관리의 인문생태계

II. 환경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제3차 기본계획 방향 설정

방향 1	방향 2	방향 3
삶의 재발견 경로 중심 미래형 정책 구조화	**삶의 현장에서 성숙한 성장 동력으로서 인문정신문화 정책 확산**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국민중심 정책기반 강화**
미래사회 대응 AI 시대 인간다움과 공존·연결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응	**생활권 기반 확대** 읍·면·동, 직장·병원 등 삶의 터전에 인문활동 확산	**성과관리 체계화** 기획–운영–참여–정책 성과를 통합 측정
삶의 변화중심 인식–성찰–관계–회복의 변화 경로로 정책 설정	**민간과 연계 확산** 독립서점 · 카페 · 인문공동체와 적극적 연계	**이용자 중심** 원스톱 정보지원과 이용자 중심 플랫폼 개편
브랜드 사업 개발 인문정책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키지형 프로그램 개발	**성숙한 성장** 단발 행사에서 기초 성장동력으로 전환	

3차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은 인간 성찰과 삶의 재발견까지 변화에 중점을 둔 인문정신문화 정책 정체성 강화

Ⅲ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과제(안)

비전(안)의 핵심 의미

- 인간다움은 감정·이익·조건에 끌려가기만 하지 않고, 공감과 이성, 성찰을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
- 인간다움 회복은 효율성에 무뎌진 인간성의 본질을 복원함을 의미하고, 인간다움 발견은 새로운 시대에 인간만의 고유함을 찾아냄을 의미
-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기억을 말하고 기록하여 인간적 유대를 복원하고 연결함을 의미
- 나와 내 주변과의 관계가 변화의 주체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회가 아닌 우리 용어를 사용

인간다움 회복과 발견, 인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우리

— AI 시대와 삶의 위기에 대응하는 인문적 사유 —

- AI의 발전이 가져올 삶의 변화와 위기 앞에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
- AI로 사고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가치·의미·윤리·관계·정체성을 성찰하며 삶의 방식과 태도로 응답함을 의미

17 / 21

Ⅲ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과제(안)

목표 설정

① 개인적 차원

사유 · 성찰,
자기회복력 증진

자신의 삶을 사유·성찰하고, 실패와 상실을 회복과 발견의 서사로 재구성하는 역량 함양

② 관계적 차원

정서적 유대감과
인간 연결 강화

세대·계층·지역을 정서적 유대와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잇는 공동체 형성

③ 사회적 차원

인간다움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

인문자산과 활동이 축적 · 연결 · 재생산되는 인문생태계 구축

18 / 21

Ⅲ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과제(안)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체계(안)

3대 추진전략, 9대 핵심과제

비전

인간다움 회복과 발견, 인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우리
– AI 시대와 삶의 위기에 대응하는 인문적 사유 –

목표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
사유·성찰, 자기회복력 증진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연결 강화	인간다움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전략(3대)	핵심과제(9개)
1. 삶의 성찰을 통한 인간다움 회복	1-1 AI 시대 인간다움과 인문적 시민역량 강화 1-2 생애전환기 삶의 성찰과 재도약 지원 1-3 삶의 회복을 돕는 인문활동 확대
2.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및 인문자산 선순환	2-1 생활권 인문생태계 조성과 인문실천 확산 2-2 지역을 깊이 이해하는 인문탐구 강화 2-3 한국 인문가치 재발견과 세계 확산
3. 인문정신문화 정책 토대 구축	3-1 인문 협력 거버넌스 구축 3-2 인문활동 지원 인프라 고도화 3-3 인문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강화

Ⅲ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과제(안)

핵심과제별 세부 추진과제(안)

전략 1.
삶의 성찰을 통한 인간다움 회복

1-1 AI 시대 인간다움과 인문적 시민역량 강화
① 인문사회 선언과 시민대화 활성화
② 판단하고 표현하는 인문리터러시 확대
③ 전환시대의 인문적 성찰 확산

1-2 생애전환기 삶의 성찰과 재도약 지원
① 생애주기별 인문을 통한 성찰·표현 활동 지원
② 청년 미래 탐색을 위한 인문활동 확대
③ 세대 간 경험과 지혜의 공유 촉진

1-3 삶의 회복을 돕는 인문활동 확대
① 일상 속 마음돌봄 인문활동 확산
② 사회적 연결을 위한 맞춤형 인문동행 강화
③ 돌봄현장 연계형 인문협력 활성화

전략 2.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및 인문자산 선순환

2-1 생활권 인문생태계 조성과 인문실천 확산
① 일상 속 인문활동 활성화
② 생활밀착형 인문거점 조성
③ 시민 주도의 인문실천 확산

2-2 지역을 깊이 이해하는 인문탐구 강화
① 인문자산의 기록 및 보존 강화
② 인문 콘텐츠 창작과 로컬창업 지원
③ 인문여정 활성화

2-3 한국 인문가치 재발견과 세계 확산
① 인문적 연대와 공동의 기억 구축
② 역사·전통 유산의 미래형 인문 자원화
③ 한국 인문가치의 국제적 확산

전략 3.
인문 정책기반 고도화

3-1 인문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① 인문 거버넌스 제도정비
② 지역주도 인문협력체계 구축
③ 부처 간 인문정책 협력 활성화

3-2 인문활동 지원 인프라 고도화
① 인문매개인력 역량 개발 · 배치
② 국민 체감형 인문 플랫폼 기능 개선
③ 디지털 인문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3-3 인문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강화
① 인문지수 개발 · 활용
② 인문 성과확산을 위한 '인문실천 선도지역' 지원
③ 현장 밀착형·미래 지향적 인문연구 확대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감사합니다.

일 시 | 2026. 11. 06. (금)
발표자 | 정보림(한국문화관광연구원 / brj@kcti.re.kr)

02 토론1

AI 시대 인문의 의미와 정책 방향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에 대한 과학기술원 경제학자의 생각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AI 시대 인문의 의미와 정책 방향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에 대한 과학기술원 경제학자의 생각

토론 |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2026. 11. 6.

AI 시대의 '인간다움'이란?

비전	인간다움 회복과 발견, 인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우리 – AI 시대와 삶의 위기에 대응하는 인문적 사유 –
목표	(개인적 차원) 사유·성찰, 자기회복력 증진
	(관계적 차원)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연결 강화
	(사회적 차원) 인간다움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



⌘ AI 시대의 '인간다움' 제안: 잔여적 인간관 → 주체적 인간관

- 잔여적 인간관: AI의 잠식을 모면한 인간의 기능으로 AI와 구분
  - AI의 진격에 계속 후퇴하는 인간의 기능적 방어선: 지능 → 창의성 → 공감 → 감정 → 의식 …
- 주체적 인간관: AI가 처음부터 갖지 못한 주체성이 인간상의 핵심
  - 자신의 목적, 즉 욕망과 선호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으면서, 그 목적이 타인과 사회와 기술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인간상 (성찰적·관계적·메타적 주체성)
  - 주체성의 회복과 (재)발견이 필요한 이유: 환경에 지배되어 온 욕망과 선호, Well-being vs. Agency (Sen)

이제 사람들은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비전	인간다움 회복과 발견, 인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우리 – AI 시대와 삶의 위기에 대응하는 인문적 사유 –
목표	(개인적 차원) 사유·성찰, 자기회복력 증진
	(관계적 차원)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연결 강화
	(사회적 차원) 인간다움과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



⌘ '인문'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는?

-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
  - 人間(사회적 동물); 삶, 죽음, 불안, …; 행복의 추구
- 연결된 자율성: 얽매이지 않으면서 연결되는 사회 지향
  - 집단 내 결속(bonding)이 아닌 집단 간 연결(bridging)의 공통분모로서 '인문' 이상의 것이 있을까?



AI 시대에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문해력(Literacy) 중 하나가 '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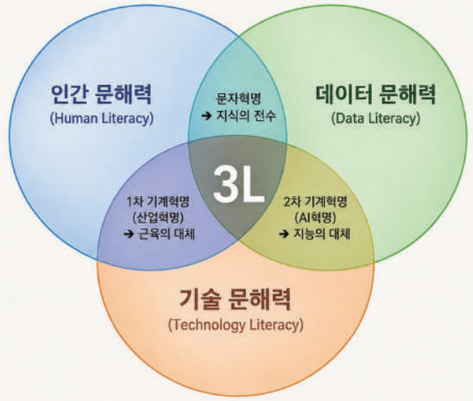
전략 1.

삶의 성찰을 통한 인간다움 회복

1-1 AI 시대 인간다움과 인문적 시민역량 강화
① 인문사회 선언과 시민대화 활성화
② 판단하고 표현하는 인문리터러시 확대
③ 전환시대의 인문적 성찰 확산

1-2 생애전환기 삶의 성찰과 재도약 지원
① 생애주기별 인문을 통한 성찰·표현 활동 지원
② 청년 미래 탐색을 위한 인문활동 확대
③ 세대 간 경험과 지혜의 공유 촉진

1-3 삶의 회복을 돕는 인문활동 확대
① 일상 속 마음돌봄 인문활동 확산
② 사회적 연결을 위한 맞춤형 인문동행 강화
③ 돌봄현장 연계형 인문협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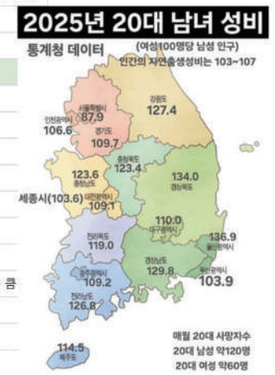


출처: 김희삼(2026), 「AI 시대, 새로운 인재상과 학습의 재구성」, 제5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포럼 「AI 시대, 일과 학습의 미래」 기조강연 자료, 6월 24일.

돈 버는 곳과 돈 쓰는 곳은 다르다. 20대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한 곳은?

순위	지역 (시·도)	1인당 GRDP	산업 구조
1위	울산광역시	약 8,500만 원	석유화학·자동차·조선 거대 산단
2위	충청남도	약 6,100만 원	반도체·디스플레이·화학 대공장 밀집
3위	전라남도	약 5,300만 원	여수 석유화학, 광양 철강 산업 기반
4위	충청북도	약 5,100만 원	바이오·반도체·배터리 신산업 생산지
5위	서울특별시	약 5,000만 원	대기업 본사·금융·지식기반 서비스업
–	[전국 평균]	약 4,500만 원	
6위	경상북도	약 4,400만 원	포항 철강, 구미 전자 산업
7위	세종특별자치시	약 4,200만 원	공공행정 중심
8위	경기도	약 4,100만 원	IT·제조업 기반 튼튼하나 거대한 인구수
9위	경상남도	약 3,600만 원	기계·조선·방산
10위	인천광역시	약 3,600만 원	바이오·물류·제조업
11위	전북특별자치도	약 3,400만 원	
12위	강원특별자치도	약 3,300만 원	시멘트·관광·농림어업
13위	대전광역시	약 3,200만 원	연구개발·공공서비스 중심 (공장 적음)
14위	제주특별자치도	약 3,100만 원	관광·서비스업 중심 (제조업 비중 3%)
15위	부산광역시	약 3,100만 원	서비스업 비중 높음
16위	광주광역시	약 3,100만 원	소비·서비스업 중심
17위	대구광역시	약 2,700만 원	섬유·기계산업 침체

순위	지역 (시·도)	1인당 소득	주요 특징
1위	서울특별시	3,222만 원	금융·대기업 본사 집적
2위	울산광역시	3,112만 원	고임금 중화학·자동차 산단
3위	대전광역시	2,875만 원	연구원·공공기관 종사자 비중 높음
4위	세종특별자치시	2,838만 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중심
5위	경기도	2,791만 원	전국 평균 상회
–	[전국 평균]	2,782만 원	
6위	광주광역시	2,778만 원	전국 평균 육박
7위	인천광역시	2,687만 원	
8위	전라남도	2,680만 원	
9위	충청북도	2,655만 원	
10위	부산광역시	2,616만 원	
11위	전북특별자치도	2,613만 원	
12위	대구광역시	2,578만 원	
13위	충청남도	2,561만 원	생산액 대비 실질 소득 유출 큼
14위	강원특별자치도	2,524만 원	
15위	경상남도	2,506만 원	
16위	경상북도	2,486만 원	
17위	제주특별자치도	2,461만 원	서비스/영세 자영업 비중 높음



주: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및 1인당 개인소득은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출처: 빛과소금 경제연구소(2026)에서 재인용)

인구축소시대, 서울·수도권 블랙홀 – 생활권의 인문생태계가 왜 중요한가?

전략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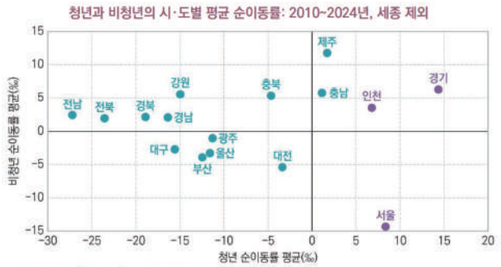
지역사회 관계망 회복 및 인문자산 선순환

2-1 생활권 인문생태계 조성과 인문실천 확산
① 일상 속 인문활동 활성화
② 생활밀착형 인문거점 조성
③ 시민 주도의 인문실천 확산

2-2 지역을 깊이 이해하는 인문탐구 강화
① 인문자산의 기록 및 보존 강화
② 인문 콘텐츠 창작과 로컬창업 지원
③ 인문여정 활성화

2-3 한국 인문가치 재발견과 세계 확산
① 인문적 연대와 공동의 기억 구축
② 역사·전통 유산의 미래형 인문 자원화
③ 한국 인문가치의 국제적 확산

청년과 비청년의 시·도별 평균 순이동률: 2010~2024년, 세종 제외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주 1: 순이동률(‰)은 인구 1천 명당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이며, 양수(+)는 순유입, 음수(−)는 순유출을 의미
주 2: 청년 인구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2026. 9.

❖ **지역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 **산업만으로는 소멸을 막을 수 없다.**

→ **인문 기반의 문화 자산과 콘텐츠가 있어야 청년들이 살 수 있다.**

AI 시대, 인문 정책의 의의는? 인문 지수의 개발 및 활용은 어떻게?

전략 3.

인문 정책기반 고도화

3-1 인문 협력 거버넌스 구축
① 인문 거버넌스 제도정비
② 지역주도 인문협력체계 구축
③ 부처 간 인문정책 협력 활성화

3-2 인문활동 지원 인프라 고도화
① 인문매개인력 역량 개발 · 배치
② 국민 체감형 인문 플랫폼 기능 개선
③ 디지털 인문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3-3 인문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강화
① 인문지수 개발 · 활용
② 인문 성과확산을 위한 '인문실천 선도지역' 지원
③ 현장 밀착형·미래 지향적 인문연구 확대

⌘ AI 시대, 인문 정책의 의의와 인문 지수의 개발

1) **인문 정책: 인간이 목적의 '주체'이자 서로 연결된 공동의 세계에서 '공저자'로 남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설계**
2) **인문 지수: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피터 드러커) → 지수 개발의 필요성**
   – **참여자 수, 보급률, 접속 건수, 만족도 등을 넘어 행위자성(agency), 성찰, 관계, 공적 참여의 변화까지 측정 필요**
   – **예컨대 관계적 지표의 경우 관계의 다양성(범세대, 범계층, 범지역 등), 6개월 지속성, 인식 및 행동의 변화 등을 측정**
   • Chetty 등(2022 *Nature*):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의 210억 개 친구 관계 분석 결과, 지역의 세대 간 상향이동성과 상관성이 강한 계층 간 연결을 막는 단절은, 1) 만날 기회가 없고 2) 만나도 친구가 되지 않는 데서 발생 → 강좌에서 탐방·체험으로 중점을 옮기면서 세대·계층이 섞이는 공동 경험 필요 (정책 함의: 생활권 인문생태계 사업 요건에 이러한 Mix 과업 명시로 사회적 연결 도모 시범사업)



말과 글로 생각을 나누고, 모두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인문 수업 – AI 시대에 인문 교육이 존재해야 할 이유

03 토론2

인간다움의 회복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새로운 지향: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정체성과 실천 방향에 관한 제언

정종은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인간다움의 회복과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새로운 지향: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정체성과 실천 방향에 관한 제언

정종은(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지난 30여 년에 걸쳐 한국문화의 국제적 위상은 눈부시게 높아졌다. K-팝과 K-드라마, K-시네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은 한국음식과 패션, 전통문화, 한국어 등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높은 문화력의 나라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문화적 영감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의 이면에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어두운 그림자 역시 엄존한다. OECD의 『Health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마찬가지로 『World Happiness Report 2026』에서 한국의 행복 순위는 147개국 중 67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적·문화적 강국이라는 위상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물론 자살과 우울, 고립, 사회적 불신 등은 복합적인 원인을 지닌 문제이며, 비단 인문정신문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상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의 그림자는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몰두해온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성취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성취는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축적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하도록 이끈다. 세계인이 한국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이 시대에, 정작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시민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보다 더한 역설이 있을까? 필자는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긴장과 거듭하여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이루어온 성취를 긍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 온 인간의 존엄과 삶의 의미, 관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서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말이다.

1. 전환: 인문활동의 확산에서 시민 삶의 변화로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인문정책을 제도화하고 인문활동의 일상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공동체의 위기 등으로 인문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두 계획은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참여 확대가 시민들의 실제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안)〉이 '인간다움 회복과 발견, 인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우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유와 성찰, 정서적 유대, 인간의 존엄을 정책의 중심에 놓은 것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인식-성찰-관계-회복'이라는 삶의 변화 경로를 제시하고, 개인적·관계적·사회적 차원의 목표를 함께 설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성과를 더 이상 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맞닿아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인문활동에 참여했는가'를 넘어, '그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이다. 다시 말해서, 〈제3차 기본계획〉은 기존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인문적 경험이 시민의 삶에 스며들어 지속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2. 진단: 성취의 빛과 삶의 그늘, 'MCH 넥서스' 성찰의 필요성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인의 노력과 역량을 중시하는 문화, 새로운 소비와 생활양식을 창출하는 역동성,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사회적 열망은 한국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쟁'과 '비교'가 지나치게 일상화 또는 내면화된 것이 아닐까?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중장년들은 직장과 가족의 책임 속에서, 노년층은 은퇴 이후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불안과 압박을 경험한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능력주의(Meritocracy), 소비주의(Consumerism), 서열주의(Hierarchy)라는 세 가지 사회문화적 흐름에 주목하고, 이들이 맞물려 개인의 인식과 관계,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MCH 넥서스'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능력주의는 자신의 역량과 성취를 끊임없이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소비주의는 그러한 성취를 생활양식과 소비를 통해 가시화하도록 이끈다. 서열주의는 다시금 개인의 성취와 소비, 사회적 지위를 모든 비교와 평가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서로를 강화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능력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나 소비의 즐거움, 합리적인 평가체계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인간의 존엄마저 성과와 지위에 따라 다르게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계속 증명해야 하고, 실패하거나 뒤처진 사람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어려움이 사회적 조건과 관계 속에서 발생했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압박이 한국인이 겪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다만 경쟁과 비교, 인정과 평가가 한국인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정서적 어려움과 관계의 위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 사회의 발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뿐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존엄하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인간다움의 회복'이란 개인에게 어려운 현실을 더욱 열심히 견디거나 적응하라고 요구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의 성찰과 더불어 상호 존중과 인정의 문화가 성장하고, 인간의 존엄이 성취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방향과 주체: 대안서사와 시민 주도의 인문실천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우리 사회에 축적된 성취와 경쟁의 서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보완하고 균형 잡아 줄 새로운 '대안서사' 또는 '대항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성취보다 안정, 성장보다 성숙을 선택해야 한다는 평면적 주장이 아니다. 개인의 역량과 노력을 존중하되 인간의 가치가 성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고유한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인문적 사유와 성찰은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성과와 비교의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축적된 경험과 관계, 기억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실패와 상실을 개인의 부족함으로만 치부하기보다 그것을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정위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문정신문화의 중요한 가치는 '사유와 성찰, 해석과 대화'에 있는바, 정책이 지원하는 '인문활동'은 특정한 지식이나 정답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익숙한 가치와 관습을 질문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활동으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뿐 아니라 예리한 비판과 질문의 가능성도 함께 포함된다. 모든 대화가 반드시 합의와 화합으로 귀결되어야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공동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인문적 경험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접한 정책영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인문치유'와 '마음돌봄' 등은 정신건강·복지정책과 연계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대신하기보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서사적으로 이해하고 경험을 나누도록 돕는 데 고유한 의미가 있다. 지역문화와 관광, 콘텐츠 산업 역시 인문자원의 활용 영역이지만,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경제적 활용을 넘어 자원에 담긴 기억과 가치, 삶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안서사'는 정책기관이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타인의 경험을 듣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의 두께가 요구된다. 또한 시민을 인문 프로그램의 수혜자나 참여자로 머물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가령 독서나 인문강좌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로 이어지고, 그 기록이 시민들과의 대화와 토론, 지역사회의 기억을

기록하는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개별 프로그램의 질과 양뿐만 아니라 인문적 경험이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경로의 구축이라고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의 진로 탐색, 중장년의 생애전환, 노년의 삶의 회고, 고립을 경험하는 시민의 관계 형성 등 서로 다른 삶의 조건에 적합한 활동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전국 각지에 자리잡고 있는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은 물론 독립서점, 생활문화공간, 시민공동체 역시 이러한 실천을 위한 귀중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생활권 인문생태계'와 '시민 주도의 인문실천' 역시 단순히 프로그램 공급 장소를 확대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이야기가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4. 성과: 한 번의 참여를 넘어 삶에 남는 변화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문적 경험과 실천이 시민들의 삶에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제3차 기본계획〉이 '인식-성찰-관계-회복'이라는 변화 경로를 제시하고, 인문지수 개발과 성과관리·환류체계의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와 그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인문활동에 대한 참여가 반드시 자기성찰이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식과 성찰, 관계와 회복 역시 획일적인 순서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자 수나 운영 횟수 등의 산출(output) 지표를 넘어 이제는 자기이해와 성찰, 대화 역량, 관계망 형성, 지역사회 참여 등 시민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outcome)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문적 성과'를 정량적 지표나 즉각적인 만족도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나 공동체 내부의 차이와 갈등을 발견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성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와 질적 조사, 후속 활동 분석을 결합하고, 그 결과가 다시 사업의 설계와

운영 개선으로 환류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경험과 학습의 축적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인문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문화의 세계적 성취는 우리 사회가 함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하다. 이제 그 성취에 걸맞게 시민 개개인의 존엄과 삶의 의미, 상호 존중과 공동체의 성숙을 함께 생각할 때이다. 세계인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문화강국이 된 만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도 MCH 넥서스에 더 이상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인식-성찰-관계-회복의 변화가 점점 확산되어야 한다. 인상적인 문화적 성취의 크기만큼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도 넓어지는 사회!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 그러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대안서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고, 발신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04 토론3

생활권에서 이어지는 인문: 얹고, 붙들고, 남기기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7~2031)의 '인문의 지역 확산(생활권 내)' 전략에 대한 제언

강현조 WOWLAB 이사



생활권에서 이어지는 인문: 엮고, 붙들고, 남기기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27~2031)의
'인문의 지역 확산(생활권 내)' 전략에 대한 제언

WOWLAB 이사 강현조

1. 들어가며: 인문 확산의 단위는 사업이 아니라 생활권이다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그동안 확대해 온 인문적 경험의 기회를 국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에 정착시켜야 하는 시점에 수립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제시한 '인간다움 회복과 발견, 인문으로 다시 연결되는 우리'라는 비전과 생활권 인문생태계 조성, 시민 주도 인문실천의 방향에 공감한다.

제2차 기본계획까지의 인문정신문화 정책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등을 통해 국민이 인문을 만날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며 양적·공간적 확산의 기반을 쌓아 온 단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그 기반 위에서, 쌓아 온 경험이 주민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지속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글이 제안하는 것도 지난 성과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음 단계를 얹자는 것이다.

필자는 공연과 문화예술 현장에서 출발해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 문화도시 등 지역문화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한 인문학적 경험을 위한 '문학극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동네책방 문화사랑방'과 '심야책방'을 기획·운영하고 도서관·박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은 서점과 지역 문화시설이 주민의 일상 속 문화적 접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사업 종료 이후 어떤 활동과 관계가 지속되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살펴보며 정책의 지속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인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과 그 경험이 주민의 일상에 자리 잡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라는 점이다. 한 번의 강연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지만, 주민이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스스로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별도의 설계와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가 지켜본 사례에서 활동의 지속성을 가른 것은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활동 공간이 주민이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지, 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만나는지, 그 사이를 이어 주는 사람이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렇다면 생활권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생활권을 행정구역이 아니라 삶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의 단위로 본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직업과 세대, 가족 형태, 돌봄의 책임, 하루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살아간다. 퇴근 후 동네서점에 들를 수 있는 직장인,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버스가 하루 몇 번 다니는 마을의 어르신이 인문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는 같지 않다.

지역의 유형에 따라 과제도 다르다. 대도시에서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면서도 관계를 맺기 어렵다. 중소도시에서는 산업과 인구구조의 변화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든다.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활서비스 접근성과 세대 간 기억의 전승이 절실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생활권 인문 확산은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에 고르게 나누는 일이 아니라, 각 생활권의 조건에 맞게 인문적 경험이 머물 자리를 찾아 주는 일이어야 한다.

AI는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정보에 쉽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곧 비판적 판단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를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엇을 질문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개인의 지식 탐색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경험을 나누고 생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다.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대화가 중요한 이유다. 이것이 AI 시대에 생활권 인문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현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엮기·붙들기·남기기'라는 세 가지 실행전략을 제안한다. **엮기는 인문적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붙들기는 그 경험을 누가 어디서 지속시킬 것인가, 남기기는 그 결과를 지역에 어떻게 축적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다.**

2. 진단: 인문적 경험은 확산되었지만, 지속되는 구조는 충분한가

지역의 인문적 활동은 반드시 '인문'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동네서점의 독서모임, 생활문화 공동체, 마을의 역사 탐방, 영화와 공연을 매개로 한 대화, 주민의

생애사 기록 등 일상 속 다양한 활동에서도 인문적 경험을 발견할 수 있다. 독서·출판, 지역문화, 생활문화, 평생교육, 돌봄·복지, 대학의 지역협력 사업 등 여러 정책 영역에서도 이미 주민의 삶과 경험을 다루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정신문화 정책 역시 국민의 인문적 경험과 참여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26년에는 기존의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에 생활권 협력형 '모두의 인문학'이 새롭게 더해지면서 운영 규모가 1,20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전년 대비 500개 증가). 특히 작은도서관과 지역서점,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 아동·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신규 참여기관의 비율이 48%에 달하면서 운영 주체도 한층 다양해졌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전환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다. 앞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인문정신문화 환경분석에 따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인문문화활동 방식은 탐방·체험(31.8%)인 반면,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강의·강연(62.2%)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주민의 참여 수요와 실제 프로그램 운영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필자가 참여한 공모 심사에서는 기존의 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고찰과 성찰을 강조하고, 참여자의 생활방식과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이 눈에 띄게 늘었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 시도에 머물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한편, 시행계획에 제시된 개별 사업을 생활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도 확인된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묻고 풀어가는 인문 활동은 공동체 갈등 극복 인문 프로젝트, 인문을 통한 세대공감 사업, 실천적 지역 인문활동, 생애주기 맞춤형 인문프로그램, 지역 문제 해결형 인문프로그램,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업이지만, 생활권에서는 동일한 주민과 공간, 지역자원을 공유하는 활동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사한 목적의 사업들이 지역에서 서로 연계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정역량이 부족한 지역이나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기존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문화활동에 참여했다고 반드시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민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그 기록이 저절로 지역의 공동자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의 지역 확산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설계: 기존 문화활동에 인문적 질문과 성찰을 더할 공통의 설계 원칙이 있는가.
- 지속: 일회성 참여를 넘어 주민의 관계와 자발적 활동을 이어갈 지원체계가 있는가.
- 축적: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를 넘어 주민의 삶과 지역에 남는 변화를 평가하고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얹기·붙들기·남기기'를 제안한다. 이는 세 개의 신규 사업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다. 기존 정책과 지역자원 위에 인문적 경험을 얹고, 사람과 관계를 통해 그 경험을 지속시키며, 그 결과가 지역에 남도록 지원과 평가의 구조를 발전시키자는 제안이다.

3. 전략 ① 얹기: 지역의 일상에 인문적 질문을 더하자

3-1. 변화한 생활방식에서 인문적 경험을 발견해야

인문의 지역 확산은 주민을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불러 모으는 방식에서, 주민의 일상적 문화활동 속에 인문적 경험을 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시민들은 책과 강연뿐 아니라 영화, 공연, 웹툰, 여행, 걷기 등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를 해석한다.

최근의 독서문화가 이를 잘 보여준다. 춘천의 '리딩웨이브'와 광주 무등산 인문축제의 '책 읽는 숲 침묵 독서'는 자연과 독서를 결합해 책 읽기를 새로운 공간적 경험으로 바꾸었다. 춘천의 '첫서재'는 한 팀만을 위한 몰입형 독서공간을, 목포의 '포도책방'은 개인의 취향을 담은 공유서가를 운영한다. 인천 배다리 헌책방 거리의 책방 레지던시는 오래된 책방과 거리의 역사, 창작자를 연결했다. 카페와 공원, 한강에서 각자의 책을 함께 읽는 모임처럼, 강연이나 토론 없이도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느슨한 관계를 만드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 극단 공육사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제주어로 각색해 2022년 무대에 올렸고, 2025년에도 지역 배우들과 함께 공연을 이어갔다. 지역의 언어와 세계 고전의 만남은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냈고, 일회성 공연을 넘어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으로 이어졌다. 필자가 현재 진행하는 '문학극장' 역시 문학이 무대와 만나는 경험을 통해 인문적 경험이 강연장과 교실 밖에서도 시작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모두 인문프로그램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다. 여가와 취향에서 출발한 관심이 자발적인 모임과 대화, 지역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연결의 기회를 넓히는 일이다.

3-2. '생활권 인문활동 설계 가이드'를 마련하자

이를 위해 제3차 기본계획의 생활권 인문생태계 과제(2-1)에 '생활권 인문활동 설계 가이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프로그램 유형을 지정하거나 운영방식을 강제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기존의 독서·공연·탐방·생활문화 활동에 인문적 깊이를 더하는 최소한의 기획 원칙이다.

- 주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질문이 있는가.
- 서로 다른 경험을 나누고 해석하는 과정이 있는가.
-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표현할 기회가 있는가.
- 활동 이후에도 관계나 기록, 후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독서모임이라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책이 던지는 질문을 각자의 삶과 연결해 보고 서로 다른 경험과 해석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고, 그 대화가 다음 만남의 주제나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질 때 독서는 단순한 문화적 취향을 넘어 인문적 성찰과 실천의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설계 원칙을 적용한 활동이 일회성 경험에 머물지 않고 깊은 인문적 성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자발성과 반복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동네책방과 심야책방을 운영하며 확인한 것도 이와 같다. 주민을 다시 오게 한 힘은 유명 강연자가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는 책방지기와 지난번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웃이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24년에 발표한 비독자 대상 독서 유인 실험에서, 지난 1년간 책을 읽지 않은 비독자가 한 달간 네 차례 독서모임에 참여한 뒤 2개월이 지나서도 독서율 84.5%를 유지했다. 독서 전문가의 참여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독서 경험과 참여자 간 교류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인문학적 경험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플랫폼인 트레바리나 온더페이지 등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독서와 대화 등 인문적 활동을 매개로 하면서도, 참여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형성을 중시한다.

이는 세대와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인문적 경험이 지식 습득을 넘어 자발적인 만남과 교류, 소속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인문정신문화의 지역 확산에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관심과 생활방식에 맞게 참여하고, 인문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3-3. 별도의 인문사업보다 기존 지역정책과 결합해야

지역에는 이미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지역서점, 대학, 학교, 복지기관이 있고, 문화도시·생활문화·평생교육·마을만들기 사업도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다룬다. 따라서 별도 사업을 늘리기보다 기존 활동에 인문적 질문과 성찰, 주민의 표현과 기록을 결합하는 '생활권 인문 모듈'을 제안한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는 이러한 결합의 가능성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에서 제시한 '창조적 공동체 돌봄'과 '문화처방'은 문화활동을 지역의 돌봄과 치유, 사회적 관계 회복으로 확장하려는 정책 방향이다. 실제로 서울시 서북병원의 노숙인 대상 인문학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자기조절능력이 14.1%, 대인관계능력이 13.2%, 자존감이 9.2% 높아져, 인문이 관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014년, 사전·사후 조사). 다만 돌봄 현장에서도 인문이 치유 서비스의 도구로만 소비되지 않도록, 사유와 성찰, 자기서사, 관계 맺기라는 고유한 역할을 설계 단계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가 운영했던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 사업》은 이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주어를 구술 채록하고 기록으로 축적한 활동을 공연과 교육, 지역어 이야기 프로그램으로 확장했고, 제주 치유의숲에서는 전통 차롱도시락을 공부하고 시연과 체험을 통해 지역의 음식문화와 자연을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엮었다. 새 사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지역의 언어와 생활문화라는 인문적 질문을 얹은 것이다.

이러한 연계가 기관이나 예산의 통합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업별 법적 근거와 집행체계가 다른 만큼, 기초지자체의 지역문화 관련 계획과 다년도 정책협약에 인문 과제를 포함하는 방식, 그리고 공동기획·기관 간 협약·성과 공유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는 2-1 '생활권 인문생태계'와 3-1 '인문 협력 거버넌스'를 지역 행정에 접목하는 실행방안이 될 수 있다.

4. 전략 ② 붙들기: 공간보다 관계를, 강사보다 연결자를 지원하자

4-1. 지원이 끝난 뒤 남은 것: 지역서점의 경험

동네책방 문화사랑방과 심야책방의 지원이 끝난 뒤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 필자가 확인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현장에 남은 역량이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민을 맞아본 서점들은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다양한 인문 활동을 스스로 이어가며 지역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 잘 설계된 지원은 끝나도 사람과 관계를 남긴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같은 현장에서 상반된 모습도 확인했다. 몇 년간 '텍스트힙'의 유행과 함께 서점은 새로 생기기도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가파르게 사라지기도 한다. 쌓아 올린 역량이 공간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생활권 인문거점 정책은 이 두 장면을 함께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점의 핵심은 건물의 규모나 소유가 아니라 주민의 접근성, 반복적인 활동, 지역 내 연결기능에 있다. 대도시에서는 기존 민간 문화공간과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중소도시에서는 도서관·문화기관·대학·지역서점의 협력을 강화하며, 농산어촌에서는 여러 마을을 잇는 소규모 거점과 이동형 활동이 현실적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거점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간 자체의 지속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

민간공간의 참여는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공공의 정책목표를 이유로 민간공간에 지속적인 무상 협력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공간 제공과 운영에 드는 적정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작은 지원이라도 참여를 지속시키는 실질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이 현장의 경험이다.

4-2.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생활권 인문의 허브로

도서관은 생활권 인문의 가장 중요한 공공 기반이다.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의 대부분이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시행계획(안)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180명, 131개관),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300개), 지혜학교 수강생의 후속모임 지원 등 도서관을 축으로 한 사업을 담고 있다. 전국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공공성을 갖춘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서관을 생활권 인문의 중심에 두려는 정부의 방향은 타당하다.

현장의 변화도 확인된다. 2장에서 언급했듯 최근 공모 심사에서는 강의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고찰과 성찰을 중심에 두고,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프로그램을 설계한 신청서가 늘었다. 도서관이 이미 '얹기'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도서관 사서는 장서 관리와 이용자 서비스, 각종 행정 업무를 함께 맡고 있고, 순환 근무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 인문프로그램을 깊이 기획하고 지역의 다른 주체들과 관계를 쌓아 가는 일을 사서 한 사람의 역량과 열정에만 기댈 수는 없다. 좋은 계획서가 늘어난 만큼, 그 계획이 실제로 운영되고 다음 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생활권 인문을 연결하는 허브'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 허브 기능: 도서관이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인근 지역서점·작은도서관·생활문화센터·복지시설·주민모임을 잇는 연결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공공도서관은 생활권의 허브로, 작은도서관과 지역서점은 주민 가까이의 접점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다. 나아가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립 위험이 있는 주민이나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독서와 대화, 기록 등 경험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 팀으로 운영: 사서 혼자가 아니라 생활권 인문 연결자, 문학상주작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가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든다.
- 역량 지원의 전환: 인문아카데미 등 역량강화 교육을 일회성 강의에서 기획 컨설팅, 사서 간 동료학습, 우수사례 공유로 넓힌다.
- 지속의 보장: 우수기관 연속지원을 2~3년 단위의 다년 트랙으로 발전시키고, 지혜학교 후속모임이 도서관 동아리로 자리 잡도록 잇는다.

4-3. 인문매개인력은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자여야

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현장에서 지켜본 2018년 인문활동가 사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에 인문 전공자들이 생활문화센터와 지방문화원 등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되어 인문동아리를 꾸리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 오늘 제안하는 전략과 유사한 설계였다. 그러나 활동 기간이 짧아서 주민과 신뢰가 형성되기도 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일부 활동에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신뢰 형성이나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기보다 단기 조사와 결과물 작성에 머무르는 한계도 나타났다. 이 경험은 매개인력 정책의 성패가 인원수보다 머무는 시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의 고향인 하동의 마을협력가 사업은 다른 설계를 보여준다. 협력가들은 주 3~5일 마을에 상주하며 주민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간 협력을 지원한다. 2023년에 시작되어 4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버려진 창고를 마을미술관으로 바꾸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를 만들었고, 해외 지역과의 교류로도 활동을 넓히고 있다. 인문정신문화 사업은 아니지만, 관계를 지속시키는 매개인력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사업에서 주목할 개념은 '관계인구'다. 지역에 주소를 옮겨 정착하지 않더라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류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역의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서 생활인구에 주목하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문매개인력은 주민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동시에 지역 밖 사람들과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인문정신문화 정책과 지역활성화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인문활동가, 문화예술 전문인력, 전통문화 전문인력, 지역문화 전문인력, 생활문화활동가,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 로컬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양성되고 활동해 왔다. 따라서 새로운 직군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인력양성체계와 연계해 역할과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인문매개인력은 단순히 강연과 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의 질문과 관심사를 발굴하고 사람과 사람, 지역의 문화·교육·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생활권 인문 연결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조사, 주민 소통, 협력기획, 갈등 조정, 기록윤리, 디지털 활용 등을 공통역량으로, 인문학적 해석과 프로그램 설계, 지역 인문자산의 발굴과 활용 등을 전문역량으로 구분해 역량강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활동하는 '지역문화커넥터'와 같은 전문인력을 생활권 인문활동의 매개자로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별도의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정책과 인적 자원을 연결해 지역 인문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4-4. 관계가 축적될 시간을 지원해야

지원이 끝난 뒤에도 활동이 이어진 사례는 시간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준다. 필자가 지켜본 한 연극 수업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참여했던 지역 주민들이 사업이 끝난 뒤 스스로 회비를 모아 배우에게 수업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회성 문화활동이 주민 주도의 실천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이런 순간은 충분한 만남이 쌓였을 때 찾아온다.

따라서 관계와 기록의 축적이 중요한 활동에는 2~3년 안팎의 단계적 지원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해에는 주민의 관심사와 지역자원을 발견하고 협력관계를 만들고, 다음 단계에서는 반복적 참여와 공동기획을 지원하며, 이후에는 주민 주도의 후속 활동과 지역 내 자원의 축적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다. 모든 사업을 장기 지원하자는 뜻은 아니다. 단기 프로그램이 맞는 영역은 유지하되, 지속성이 필요한 활동에는 그에 맞는 기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재원 역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공동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획일적인 매칭 부담을 지우면 오히려 격차가 커진다. 차등지원 원칙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2-1, 3-1, 3-2 과제와 연결된다.

5. 전략 ③ 남기기: 주민의 경험을 지역의 인문자산으로 이어가자

5-1. 주민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표현하도록

인문정신문화의 중요한 성과는 주민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표현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칠곡 할머니들은 성인문해교육으로 뒤늦게 한글을 배운 뒤 자신의 삶을 시로 썼다. 그 이야기는 시집과 영화로 이어졌고, 손글씨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칠곡할매글꼴'이 되었다. 2023년에는 지천면 할머니들이 힙합 그룹 '수니와 칠공주'를 결성해 자신의 시를 랩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주목할 점은 주민의 이야기가 콘텐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새로운 창작과 표현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령층의 문화활동을 수동적인 여가나 복지 서비스로만 보던 시각을 넘어선다. 진주에서 어르신들이 써 온 사투리와 생활 표현을 책으로 남기려는 활동도 같은 맥락이다. 사투리에는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 노동과 생업의 경험, 한 시대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 다만 출판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와 도서관, 주민모임에서 다시 읽히고 세대가 함께 쓰는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

5-2. 지역의 기억을 기록에서 활용과 실천으로

기록은 중요하지만 기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월선리 주민 자서전 프로젝트에서는 목포대학교 RISE사업단 소속 대학생들이 주민의 생애사를 인터뷰하고, AI 녹취 프로그램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해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다. 개인의 삶을 세대 간 대화와 공동기억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의 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록과 전시 《힐튼서울 자서전》은 인문자산이 오래된 마을이나 문화유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건축물과 일상의 장소에도 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문기억의 순환구조'를 제안한다. 지역의 삶과 기억을 발견하고 기록한 뒤, 주민과 함께 해석하고 독서·전시·공연·교육·탐방으로 활용하며, 그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경험을 다시 지역에 축적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고령 주민의 삶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활동으로, 도시에서는 재개발과 산업전환으로 사라지는 장소의 기억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자료 정리와 검색을 도울 수 있지만, 기록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공개와 활용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이는 2-2 '지역을 깊이 이해하는 인문탐구' 과제를 생활권에서 구체화하는 방향이다.

5-3. 참여 실적을 넘어 지역에 남는 변화를 평가해야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 만족도는 접근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지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주민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이해했는지,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 관계가 생겼는지, 지역의 기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자산이 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문화영향평가의 문화향유, 표현 및 참여,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의성 관점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인문의 특성에 맞게 다음 다섯 관점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관점	살펴볼 질문	측정방법(예)
접근성	생활조건이 다른 주민이 인문적 경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가	참여자 구성, 생활권 내 거점 분포
주도성	주민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활동의 방향을 정했는가	주민 기획 비율, 인터뷰
관계성	세대와 배경이 다른 주민이 대화하고 협력했는가	세대·배경별 참여 구성 및 교류 사례 분석
지속성	활동 이후에도 모임과 후속 실천이 이어지는가	반복 참여율, 자생 모임수
축적성	주민의 기록과 경험이 지역의 공유 자산으로 남았는가	기록물의 공개·활용 여부

다섯 관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칠곡 할머니들의 글쓰기라면, 문해교육 참여 인원보다 자기표현의 확대, 시에서 글꼴과 힙합으로 이어진 창작의 지속, 학교와의 세대 교류를 살펴본다(주도성·지속성·관계성).
- 월선리 주민 자서전이라면, 출간된 권수보다 주민의 참여 방식, 자서전이 마을과 학교에서 다시 읽히는지, 후속 기록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한다(주도성·축적성).
- 힐튼서울의 기록이라면, 관람객 수보다 장소의 기억을 어떻게 수집하고 해석했는지, 그 기록이 공공에 열려 있고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본다(축적성·접근성).
- 제주어 활동이라면, 구술자료의 양보다 기록된 언어가 공연과 교육, 주민 체험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그 언어를 경험하는지를 본다(관계성·축적성).

이 과정에서 기존 평가 틀의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힐튼서울과 같은 비지정 건축물이나 일상적 장소의 기억은 기존 국가유산 지표에 그대로 담기 어렵다. 지역 인문자산의 기록과 활용을 살펴보는 별도의 특성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지표들은 단순한 수치로 환원하지 않아야 한다. 반복 참여율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주도성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인터뷰와 사례 분석을 함께 써야 한다. 또한 지역의 규모와 인구구조를 고려한 차등 평가가 필요하다. 대도시의 대규모 참여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지속모임을 참여 인원만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는 3-3 '인문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과제를 구체화하는 방향이다.

* 평가 관점은 제안으로, 실제지표는 도입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와 현장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

6. 실행체계 제안: '생활권 인문경험 순환모델'과 기존 기반의 연계

6-1. 발견 – 연결 – 실천 – 축적

'얹기·붙들기·남기기'가 지역에서 작동하려면 공통의 실행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견 – 연결 – 실천 – 축적'의 생활권 인문경험 순환모델을 제안한다.

- 발견: 지역에 부족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이 겪는 문제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미 있는 공간과 활동, 사라져 가는 장소와 언어를 살핀다.
- 연결: 도서관, 서점, 학교, 대학, 문화기관, 복지시설, 주민모임이 각자의 기능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행정은 직접 운영하기보다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을 지원한다.
- 실천: 주민이 독서와 토론, 공연과 영화, 걷기와 탐방, 구술 기록 등을 통해 질문하고 생각을 표현한다.
- 축적: 기록과 관계, 협력체계가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이 다시 시작된다.

6-2. 새 플랫폼보다 기존 기반의 활용

이 순환모델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은 지역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인문360과 인문네트워크는 인문콘텐츠와 프로그램, 인문매개자 연결,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의 후속 활동과 참여 정보를 연결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획자가 필요한 자원을 찾고, 주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참여할 활동을 발견하며, 한 지역의 경험이 다른 지역의 기획에 참고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정보를 곧바로 성과지표로 쓰기는 어렵다. 활동의 지속 여부와 주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운영기관 간 협의와 데이터 표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6-3. 제3차 기본계획에 반영할 네 가지 실행과제(안)

실행과제	주요내용	3차 계획 과제
1) 설계 가이드와 인문 모듈	생활권 인문활동 설계 가이드 마련, 지역문화 협약 안에 인문 과제 편입	2-1, 3-1
2) 기존 공간의 거점 기능 강화	도서관을 생활권 인문 허브로 재정의하고 서점 · 생활문화센터 · 복지시설과 연결, 적정 운영비 지원, 인구감소지역 공간 지속 지원	2-1
3) 생활권 인문 연결자와 다년도 지원	기존 인력양성과 연계, 공통 · 전문역량 구분, 2~3년 단계적 지원, 차등지원	3-2
4) 다섯 관점의 성과관리	접근성 · 주도성 · 관계성 · 지속성 · 축적성, 정량 · 정성 병행, 지역 규모별 차등 평가	3-3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활권의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다. 같은 세 가지 전략도 생활권의 유형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6-4. 생활권 유형에 따른 차등 적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 인구감소지역
핵심 과제	가까이 살아도 관계가 없음	산업 · 인구 변화로 공동체 정체성 약화	문화공간 접근성, 인구감소, 세대 간 기억의 단절
얹기	민간 문화공간과 커뮤니티의 취향 기반 활동에 인문적 질문 결합	도서관 · 대학 · 지역서점 · 학교의 기존 프로그램 연계	지역언어 · 생활문화, 생애사와 기존 활동의 결합
붙들기	직장인 · 양육자 등 생활시간에 맞춘 반복 모임	기관 간 협력체계와 지역 연결자 배치	마을 간 소규모 거점, 이동형 활동, 지역 연결자
남기기	사라지는 도시 장소의 기억 기록·공유	산업 전환기 지역 서사의 축적	고령 주민의 삶과 지역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승
성과의 초점	관계성 · 주도성	관계성 · 지속성	접근성 · 지속성 · 축적성

이 구분은 고정된 유형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한 도시 안에도 여러 생활권이 겹쳐 있는 만큼, 기초지자체가 스스로 생활권의 조건을 진단하고 세 전략의 조합을 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환모델의 '발견' 단계가 바로 이 진단에 해당한다.

6-5. 역할 분담

중앙정부는 공통의 설계 원칙과 지원·평가 기준, 정보 연계의 틀을 마련하고, 광역단위는 지역 간 자원과 전문성을 연결하며, 기초단위는 실제 생활권의 협력과 운영을 지원한다. 모든 지역에 같은 전담조직이나 사업모델을 둘 필요는 없다. 기존 지역문화정책의 추진체계와 연계하되,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유연하게 배치해야 한다. 향후 '인문실천 선도지역'을 운영한다면, 규모가 큰 지역이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변화의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7. 맺으며: 인문을 지역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안에서 이어지도록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은 인문적 경험의 기회를 확대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그 경험이 지역의 일상에서 지속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인문활동만으로 인구감소를 막거나 지역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문은 서로 다른 삶을 이해하고, 공동의 문제를 질문하며, 주민의 기억과 경험을 지역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 시대일수록 이러한 사유와 해석, 관계 형성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필자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서 배운 것은, 잘 설계된 지원은 끝나도 사람과 관계를 남기지만, 너무 짧은 지원은 신뢰가 싹틀 시간조차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원이 끝난 뒤 서로 연대해 인문 활동을 이어가며 빠듯한 운영비로 독서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작은 도서관, 자체 마을축제를 연 서점들, 스스로 회비를 모아 배움을 이어 간 주민들이 그 증거다. 동시에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서점과 문화공간이 사라져 가는 현실은, 축적된 역량을 붙들 구조가 없다면 그 성과도 함께 사라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차 기본계획의 지역 확산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 얹기: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보다 기존의 문화활동과 지역정책에 인문적 질문과 성찰을 결합한다.
- 붙들기: 일회성 프로그램을 넘어 주민의 관계와 활동을 이어 주는 공간과 사람, 협력체계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지원한다.
- 남기기: 주민의 삶과 기억이 지역의 자산으로 축적되고, 새로운 세대의 표현과 문화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은 생활권 인문활동의 설계 원칙을 마련하고(2-1), 기존 지역정책과 협약 안에 인문을 편입하며(3-1), 관계를 잇는 인문매개인력과 거점을 지속 지원하고(3-2), 주민의 삶에 남는 변화를 인문지수와 인문실천 선도지역의 기준으로 삼는(3-3)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주민을 인문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참여하며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국정 방향을 생활권에서 구체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지역이 이미 가진 인문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로 다른 삶을 연결하며, 그 경험이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과 사업을 확대하는 데 앞서, 이미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공간과 인력, 정책과 정보 기반을 연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성과를 참여 규모뿐 아니라 주민의 주도성, 관계의 지속성, 지역에 축적되는 경험과 기억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국 제3차 기본계획의 지역 확산 전략은 인문을 지역에 얼마나 많이 공급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에서 인문적 경험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속되며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문정신문화의 지역 확산을 앞으로도 시설과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증가로만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질문하며, 지역에 관계와 기억을 남기는 과정까지 정책의 성과로 인정할 것인가. 제3차 기본계획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 필자가 직접 기획·운영했거나 현장에서 지켜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현행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방향성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힘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자료집

2026년 11월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